

치사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대학생, 청년 불교의 기수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역시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한해를 이끌어갈 회장 이 취임식을 연다고 하니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로운 원력으로 한해를 이끌어가기를 당부합니다.

내년으로 대불련은 49년차를 맞는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불련은 청년 불교, 지성불교의 길을 열었고 신심 깊은 지식인과 청년 불자는 물론 수많은 스님들을 배출하는 등 한국불교의 동량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젊은 대학생 특유의 역동성으로 한국불교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는 청량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진리의 벗, 진리의 열, 진리의 빛을 구현하기 위해 결집한 우리 대학생불자들은 지난 반백년 동안 청년 불교 활성화는 물론 민중불교운동과 정법 수호를 위한 불교 자주화 운동의 선봉에서 한국불교의 나아갈 길을 여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불련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에는 특정 종교 편향에 의한 종교 갈등이 재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현 정부의 특정 종교 편향 정책에 따른 문제가 그것입니다. 특정 종교의 원리주의에 입각한 정책은 종교 간의 소통 부재와 화합을 저해하고 있으며 불교계는 물론 다른 종교를 신앙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비구들에게 전도선언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 유행을 떠나라'고 부촉하셨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전파가 배타적 종교관을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교는 배타성을 떨쳐버리고 먼저 대중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종교는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고 타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성이라는 함정, 즉 도그마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문제가 정부차원의 정책으로 비화되면 소통과 화합은 사라지고 국민 간, 종교 간, 각계각층 간 불협화음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수차례 경험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종교 편향의 문제뿐만 아니라 유례없는 법난을 겪으면서 불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교계의 충정을 여론 몰이로 왜곡하는 현 정부와 여당의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조계종은 정부 의존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자존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것입니다. 찾아오는 손님들은 불교적 방식으로 소박하게 맞이할 것

이며,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는 스스로 관리하고 지켜갈 것입니다. 사찰이 어려운 이웃들을 보듬고 우리 사회 다양한 문화가 함께 숨 쉬는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 모든 이들이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느끼는 터전을 일구어 갈 것입니다.

한국 불교의 젊은 사자(獅子)인 대학생 불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는 지난 반세기의 성과를 이어 새로운 반세기를 열어가야 할 책무가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대불련은 한국불교에 지성과 젊음, 그리고 신선한 역동성을 불어 넣었습니다. 또한 정법이 침탈당할 때는 누구보다 먼저 행동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불련의 전통은 지금의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정법수호와 전법활동이라는 변치 않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또한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전제를 잊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나아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는 아파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편견을 모두 극복하고 그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젊은 대학생 불자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이 한국불교에는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불퇴전의 원력을 세우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임하는 박경호 전 회장과 새로 취임하는 이인근 신임 회장을 비롯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대학생 불자님들이 보다 큰 원력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데 힘을 보태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타종교계 동아리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역대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아울러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대학생 포교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지도법사, 지도위원, 지부장과 지회장, 회원 각자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4(2010)년 12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